

南 “포탄 도발 사과” 北 “대북 방송 중단”... 양보 없는 줄다리기

‘일촉즉발’ 전쟁 위기서 협상까지... 긴박했던 3박 4일

지난 20일 북한의 포격 도발로 시작된 한반도 위기는 23일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이뤄지기까지 긴장과 반전이 이어졌다. 북한은 도발과 함께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열어 48시간(22일 오후 5시) 안으로 대북심리전 방송을 중지하고 모든 심리전 수단을 전면 철폐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군사적 행동을 넘어간다는 최후통첩을 하면서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그러나 추가도발 최후통첩 시한 만료를 앞두고 북한 대남업무 총괄하는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가 대화를 제의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정부가 따르면 김 당 비서는 지난 21일 오후 4시 본인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21일 혹은 22일 판문점에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1대 1 접촉을 갖자고 제의했다. 우리측은 2시간만인 오후 6시에 김 당 비서가 아닌 북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접촉을 제의하는 김 안보실장 명의의 수정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했다.

한동안 답이 없던 북측은 22일 오전 9시 35분께 황 총정치국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북측 대표로 황 총정치국장과 김 당 비서가 나올 테니 남측에선 김 안보실장과 황 장관이 나왔으면 한다는 수정 제의를 했다.

김 안보실장은 오전 11시 25분께 이에 동의한다는 통지문을 보냈고, 북측이 12시 45분께 동의한다는 답신을 보내오면서 남북 고위급접촉이 성사됐다. 북측의 첫 접촉 제의에서 최종 확정시까지 20시간 45분이 소요된 것이다.

고위급 접촉은 10시간 가까이 지난 23일 새벽 4시 15분에 정회했다. 북측의 경우 언론을 통해 고위급 접촉 사실을 신속히 전하면서 우리나라를 그동안 많이 사용하던 ‘남조선괴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로 표현하는 등 종전과는 다른 자세를 보여 주목됐다.

남북은 23일 오후 3시 30분부터 11시간 만에 접촉을 재개했다. ‘밤샘 마라톤협상’

김양건 대남비서 먼저 제의

남 2+2 회담 수정 제시 성사

대화 의지 강해 합의 가능성

에서 남북은 일단 강한 협상의지를 확인했지만 해빙 도출을 위한 각론에서는 팽팽히 맞섰다. 서로 다른 견해에도 고위급접촉을 재개한 것은 대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날 10시간에 가까운 마라톤협상에서 북측은 이번 위기의 원인이 된 북한의 지난 4월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도발과 20일 DMZ 인근에서의 포격 도발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우리 군의 대북심리전 방송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위기해소의 출발은 북측이 우리측 부사관 2명에게 큰 부상을 입힌 지뢰도발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이 선행돼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북측이 최근 도발에 대해 솔직한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을 안내기 위해 자신들의 소행이라는 주제는 생략한 채 ‘군사분계선에서의 최근 상황’이라는 두루뭉술리한 표현으로 유감 표명을 할 여지는 있는 것이냐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북측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도발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면서 원칙을 강조해온 우리 정부가 명확한 주제표현이

없는 유감을 수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협상 과정에서 남북이 인도주의적 문제인 이산가족 상봉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며 합의도출의 여지를 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한 고위급접촉이 진행되는 가운데도 북한의 잠수함 수습 작업이 동·서해 기지를 이탈해 위치가 식별되지 않아 우리 군이 탐지전력을 증강해 추적에 나서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여전히 팽팽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남북이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도발에 따른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2차 고위급 접촉을 진행한 23일 무장한 군 장병들이 차량을 타고 파주시 통일대교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긴박했던 나흘 시간대별 구성

23일 오후 8시 현재

8월 20일

- 오후 3시53분 북한, 14.5mm 고사포(추정) 1발 발사. 경기도 연천 중면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넘어 떨어짐.
- 4시12분 북, 76.2mm 직사화기(명곡사포) 군사분계선(MDL) 남쪽 710m 지점에 3발 발사.
- 5시4분 북, MDL 북쪽 500m 지점에 155mm 자주포 29발로 대응사격.
- 6시 차대통령,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주재... 북도발 단호 대응 지시

21일

- 새벽 1시, '심리전 중단 안할 경우 군사적전환 지휘관 전선 급파'
- 오전 9시 경 한미 군 연합작전체제 가동
- 9시50분 경 한미, 대북감시체계 '워치콘' 상황 조정
- 10시 당국, 북한군 화력부대 전방 이동체제 움직임 포착
- 오후 1시30분 박근혜 대통령, 3군사령부 전격방문. '북한의 어떤 추가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하라'
- 4시 靑, NSC 상임위 개최... '북추가 도발시 단호응징'
- 北, 김양건 당 비서명의 통지문을 통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김양건 당 비서와의 접촉을 제의
- 6시 경 우리 측,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명의의 김양건 당 비서가 아닌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접촉에 나오라는 수정 통지문을 북으로 보냄.
- 8시10분 경 北 조선중앙통신, 전방부대들 군사적 행동준비 완료

22일

- 오전 9시30분경 북측,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당 비서가 나오겠다고 하면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황용표 통일부장관이 나올 것을 요청해 우리 측 받아들임.
- 10시30분 경 北 화성기 타격 준비 움직임... 76.2mm 견인포 DMZ 내 배치 포착
- 낮 12시 경 한미 전투기 8대, 한반도 상공서 대북 무력시위 비행
- 오후 3시 청와대, 오후 6시 판문점에서 고위급 접촉 전격합의 발표
- 5(남한 시간 5시30분) 최초 북한 최후 통첩시간
- 6시 36분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황용표 통일부장관, 북측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김양건 노동당 비서(겸 통일전선부장) 간 고위급 접촉

23일

- 4시 15분 1차 접촉 정회
- 오후 3시 30분 2차 접촉 시작

남북 '2+2 대화' 정착되나

안보실장·통일장관 vs 총정치국장·대남비서 양측 수석대표 김관진·황병서 1949년생 동갑

북한의 포격도발로 조성된 위기상황 해법 모색을 위한 남북간 고위급접촉에서 주목되는 것은 대표단의 구성과 격(格)이다.

우리측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황용표 통일부장관, 북측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김양건 노동당 비서(겸 통일전선부장)로 이뤄진 남북 고위급접촉 대표단은 과거에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극히 이례적 구성이다.

당연히 이렇게 구성된 남북 대표단의 회담 성격의 만남도 처음이다.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지난해 10월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을 계기로 최후에 노동당 비서, 김영건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 등과 방남했을 당시 인천의 한 식당에서 김관진 실장과 오찬회담을 한 적이 있다. 우

리 측에서는 당시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참석했다.

그러나 당시의 회담은 식사를 겸한 환담 수준이었고 정식 회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번 김 실장과 황 총정치국장의 만남은 회담 성격으로는 처음이라고 봐야 한다. 우리 국가안보를 책임진 장관급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북의 군부서열 1위 총정치국장이 회담 형식의 첫 만남을 가진 것이다. 우리 통일부장관과 북측 대남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회담 파트너로 만난 것도 처음이다.

앞으로 주목되는 것은 남북간 국가안보실장·통일부장관-총정치국장·대남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 간 이른바 '2+2' 대화 채널이 새로운 대화형식으로 정착되느냐

여부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 들어서 한동안 끊겼던 이른바 남북간 '통-통'라인이 복원되고, 대화파트너 격 측면에서도 우리 통일부장관과 북측 대남비서 겸 통일부장관 새로운 채널을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북측이 이번 고위급접촉에서의 대화채널을 앞으로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북측이 남북간 군사충돌 위기속에서 임시방편으로 우리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양측 수석대표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서로 닮은꼴로 주목을 받았다. 김 안보실장과 황 총정치국장은 모두 한국전쟁 발발 1년 전인 1949년생으로 동갑이다. 김 안보실

장은 그해 8월 27일 전주에서 태어났다.

황 총정치국장의 출생지와 생일은 명확하지 않지만 역시 전북 고창군 성내면 출신일 가능성이 거론된 바 있다. 그가 한국전쟁전 월북한 뒤 간첩으로 남파됐다가 체포돼 1985년 대전형무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전향장기수 황필구씨의 아들이란 설이 제기된 것이다. 다만 성내면 선산에 있는 황씨의 묘비에는 황병서란 이름은 적혀있지 않고 호적에도 관련 기록이 없다.

황 총정치국장이 정전협정 이후에도 남한에서 활동하다 1956년 북한으로 넘어가려다 사살된 빨치산 황재길씨의 아들이란 설도 있다. 황재길씨의 고향 등은 알려진 바가 없다. /연합뉴스

HNT 하나투어

제 11회 하나투어 웨딩&허니문 박람회

2015. 9. 5(토) ~ 6(일) 11:00 ~ 19:00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충장점 (동구 불로동 96-7)

문의전화 062) 228-1199

최대 140만원 할인 혜택
독일 기펠 토스트키 제공
사전 방문 상담 예약 시 다양한 특전 제공

하나허니문 추천 상품

캐주얼 [세미팩] 파리/로마/바티칸 7일

총상품가 2,566,8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 경비 있음

출발일: 8월 ~ 12월 일/월요일

특 전: 몽파르나스 전망대 입장권
몽파르나스 타워 레스토랑 코스 요리
파리-로마 중간 구간: 항공 이동

클래식 [KE직항] 이태리 일주 7일-스냅 촬영 3시간

총상품가 3,024,4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EUR30 선택경비 있음

출발일: 8월 ~ 12월 일요일

특 전: 로마 전용 차량으로 관광
피렌체·베니스 허니문 단독 가이드 투어 포함
마짱골레(해물특식), 티본 스테이크 미니 포함

■ 여행상품 가격표(내역): 유류동향료, 공항이용료, 인명보험료, 관광진흥기부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임. 개별여행상품은 미포함. ■ [유류동향료] 유류동향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가이드/기사] 가이드/기사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 [사전내역] 내용은 일일료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박/항공]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관광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일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속이전 사항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사편 사인 통지를 받습니다. ■ 관광사편자 등록번호 제26004-1993-8 (종로구현)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지하1층 ■ 최소 출발인원 30명 / 출발 2일전 이상 2인 1실/고통관 항공/버스/해상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청탁/불만처리: Tel 1577-1233ARS (연락처 09시) ■ 당일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동향료와 재산관리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류비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관광이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관광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를 참조해 주세. 해외 안전 여행 단체별 국가 지정 한한11 ■ 여행 유약 ■ 여행 지체 ■ 항공 권고 ■ 여행 금지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 www.HanaTour.com